



### SKT '뮤직 멀티뷰' 출시 원하는 가수 골라 듣는 5G 음악서비스 선보여

SK텔레콤은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 5GX멀티뷰관에 5G 음악서비스 '뮤직 멀티뷰'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뮤직 멀티뷰는 음악공연을 시청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별도로 선택해 보고 들을 수 있는 뮤직 콘텐츠 서비스다. 예를 들어 옥수수 5GX관에서 5인조 밴드의 음악방송 공연을 시청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드러머, 보컬 등의 연주와 공연영상만 개별적으로 선택해 보고 들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18일부터 KBS 1TV의 전문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시작으로 KBS 2TV '뮤직뱅크', MBC 에브리원의 '주간아이돌' 등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를 생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모바일 OTT 옥수수 5GX 멀티뷰관에서 독점 제공한다.

기존 음악방송 서비스가 카메라별, 또는 뮤지션별 영상보기와 360도 가상 현실(VR) 시청 수준에 머물렀다면, 뮤직 멀티뷰는 영상과 연주뿐만 아니라 가수와 악기별 시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뮤직 멀티뷰 서비스는 18일부터 OTT 서비스 옥수수 5GX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쌍용차 침수 등 수해차량 10월까지 특별정비

쌍용자동차가 장마철 국지성호우 및 태풍, 게릴라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해차량 특별정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하며, 보험 미 적용 수해 차량은 총 수리비(부품+공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서비스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및 수해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물론 소모성 부품을 무상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시동 조치 등의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폭우에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 및 변속기, 전기장치 등 차량의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근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 LG U+ '5G 스마트팩토리' 中 小 企 到 擴 展

중진공과 손잡고 전국 보급확대  
안산 중기연수원 스마트공장에  
5G모듈·모터진단·작캠 등 적용  
전주, 창원 등 전국 확대구축 추진

LG유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5G 기반 스마트공장배움터 실증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판매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교육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5G 스마트팩토리 제공 대상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운영인력 6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경기 안산의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조원석 상무(왼쪽)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 김형수 이사가 5G 기반 스마트공장배움터 실증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교육장인 스마트공장배움터에 5G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전국으로 스마트 교육장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내달 말까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배움터의 이동형 로봇, MCT설비 센서 등 실습용

설비에 5G 모듈과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인 모터진단, 작캠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 향후 신속되는 스마트공장배움터도 5G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팩토리 교육장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긴밀히

교류하고 5G 등 신기술 기반 창업자 지원 활동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에 따른 수익 창출은 물론 자사의 5G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전국 공장 운영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안산 스마트공장배움터에서 교육 예정인 1만여명의 스마트공장 운영자들에게 5G 기반의 최첨단 실습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조원석 상무는 "양측의 협력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배움터 5G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에 특화된 5G 스마트팩토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B2B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현대로템, 폭염도 견디는 열차용 견인전동기 개발

국내 첫 고내열성 절연물 활용  
'클래스 220' 절연내열등급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용 견인전동기.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고내열성 절연물을 활용한 열차용 견인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높은 온도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Class) 220' 절연내열등급의 전동차 및 고속차량용 견인전동기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클래스 220 절연내열등급은 국제규격에 따라 주위온도 대비 최대 섭씨 220도 높은 온도에서 절연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절연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현대로템은 높은 온도의 열차 운행 환경을 요구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에 걸쳐 국내 최초로 클래스 220 등급의 견인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견인전동기의 절연내열등급은 클래스 200

이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견인전동기는 주위온도 보다 220도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기능을 갖춰 열대기후 지역과 국내 여름철 폭염에도 열차 운행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경량화 설계로 기존 제품 대비 약 5% 중량을 저감해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개발로 현대로템은 클래스 220 등급을 받아 유럽(ABB, 지멘스), 일본(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글로벌 견인전동기 제작사들과 동등 이상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지속적으로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해 철도차량뿐 아니라 견인전동기, 신호장치, 추진시스템 등 각각의 부품을 별도 판매해 철도사업 포트폴리오를 전장품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견인전동기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면서 국내 여름철 폭염에서도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인도, 튀니지, 이집트 등 열대기후 지역의 철도시장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해외수주와 매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SK실트론, 발달장애 훈련생 17명 실무투입

대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수료식  
22일부터 환경미화 등 업무 수행

SK실트론이 발달장애인들을 새로 맞이했다.

SK실트론은 16일 구미 2공장 창의관에서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취업연계 특화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훈련센터 훈련생 17명이 SK실트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연계 특화훈련을 마무리는 자리다.

훈련생들은 오는 22일부터 SK실트론에 출근해 환경미화와 사업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훈련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구미 파견훈련장에서 발달장애 전문 특화 훈련을 받았다. 경북지사와 구미장애인복지관에 현장적응을 지원 받았다.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김연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훈련 활성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구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운 기자 juk@

## 두산, 英 社 建 物 用 燃 料 電 池 公 同 開 發

세레스 파워와 협약 체결

㈜두산이 영국에서 연료전지를 공동 개발한다.

㈜두산은 16일 영국의 연료전지 기술업체인 세레스 파워와 5~20kW 규모의 건물용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동현수(㈜두산 부회장과 필 콜

드웰 세레스 파워 대표 등이 참석했다.

SOFC는 연료전지의 한 타입으로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전력 생산효율이 높고, 촉매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회사는 PEMFC(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 20kW 이하)와 PAFC(인산형 연료전지, 440kW) 타입의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건물용 SOFC 이외에 발전용 SOFC 기술 확보도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실트론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일할 예정인 발달장애인 취업연계 특화훈련생 수료식을 진행했다. /SK실트론